여름 햇살

남 대 희

개울물
아랫마을
마실가는데
여름 햇살
아장아장
따라나서다

징검다리
폴짝
건너뛰려다
개울물에
퐁당
빠져 버렸어

꼬르륵
거품 내며
잠수하다가
소금쟁이
발목 잡고
기어 나와요

보글보글
물거품 터질 때마다
톡톡톡톡
튀어나온
싱싱한 햇살.

송사리 떼 화들짝
산그늘 숨고
개울물 갸울갸울
터진 웃음보.